

- 주요 뉴스: 美 12월 제조업지수 예상 상회. 연준 매파인사, 제한적 통화완화 강조
 - 중국 인민은행, 적절한 시기 금리인하 시사
 - 미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공식 불허
 -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가로 5년래 최대치 기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2월 제조업 지표의 예상 상회, 투자심리 회복 등에 영향
 - 주가 상승[+1.3%], 달러화 약세[-0.4%],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12월 美 제조업지수 개선 등으로 투자심리 회복
유로 Stoxx600지수는 광산업, 소비자재 기업들의 부진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 위안화 약세 등에도 소폭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으로 4bp 상승
독일 국채금리는 5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66.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8.5원, 0.08% 하락). 한국 CDS 약보합

주요지수					주요금리				
		1/3일	1/2일	전일대비			1/3일	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42.5	5,868.6	+1.26%	국채금리 10y	미국	4.60%	4.56%	+4bp
	유럽	508.19	510.67	-0.49%		독일	2.43%	2.38%	+5bp
	중국	3,211.4	3,262.6	-1.57%		영국	4.59%	4.60%	-1bp
	일본	휴장	휴장	-	CDS 5y	한국	38bp	38bp	-0bp
	한국	2,441.9	2,398.9	+1.79%		중국	64bp	66bp	-2bp
환율	달러지수	108.92	109.24	-0.43%	위험지표	EMBI+	-	364	-
	유로화	1.0308	1.0265	+0.42%		VIX	16.13	17.93	-10.04%
	엔화	157.26	157.50	+0.15%		WTI유	73.96	73.13	+1.13%
	위안화	7.3215	7.2994	-0.30%	원자재	구리	407.4	402.6	+1.18%
	원화	1,469.7	1,469.1	-0.04%		금	2,640.2	2,657.9	-0.6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2월 제조업지수 예상 상회. 연준 매파인사, 제한적 통화완화 강조

- 12월 ISM 제조업지수는 49.3으로 전월 및 시장 예상치를 0.9포인트 상회. 기준선인 50을 밑돌며 경기수축 국면을 이어갔으나 9개월래 최고치 기록. 하위 지수별로 신규 수주 52.5(2개월 연속 확장세), 생산지수 50.3 (7개월 만에 확장세 전환), 고용지수 45.3(전월 대비 -2.8포인트), 가격지수 52.5(전월 및 시장 예상 상회) 등
-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관계자는 미국 제조업이 12월에 위축됐지만 전월에 비해 위축 속도가 느려졌으며, 수요는 개선되었고, 생산은 예상에 부합했고, 인력 구조조정은 지속되었지만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고 평가
-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임금 및 물가에 상승압력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복귀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통화정책을 제한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아울러 노동시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하며 기업들은 해고보다는 채용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황으로, 실업률 상승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이민 증가로 인해 노동자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중국 인민은행, 적절한 시기 금리인하 시사

- 인민은행은 작년 4분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중국경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불충분한 내수, 외부 환경 변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금융 시스템 내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채 매매를 실시하고 장기 수익률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

■ 미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공식 불허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기업의 통제에 두면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위협을 초래한다며,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자랑스런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발표
- 또한 철강 생산은 미국의 중추이며, 철강은 미국의 인프라와 자동차 산업, 방위산업 등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철강산업은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

■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가로 5년래 최대치 기록

- GM의 판매량은 270만대로 전년 대비 4% 늘었으며, 포드는 208만대로 역시 4%, 도요타는 230만대로 3.7% 증가. 시장에서는 올해 판매량이 1,600만대를 기록하며 '19년의 1,700만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다음주 한파 및 눈폭풍으로 천연가스 공급 차질과 대규모 정전 발생 가능성

- AccuWeather에 따르면 다음주 혹한으로 40개주 2.5억명이 추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은 강추위로 천연가스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생산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대규모 정전 가능성을 우려

■ 비트코인 ETF, 새해 첫거래일에 자금 순유출

-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세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1.2일 3.3억 달러(약 5천억원)가 순유출. 이는 작년 1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이후 일간 기준 최대 규모 순유출로, 일각에서 이같은 자금 순유출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지적

■ 이스라엘-하마스, 카타르에서 휴전협상 재개

-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1.3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 이는 이스라엘이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휴전협상 실무 대표단을 도하로 파견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트럼프, 英 재생에너지 정책 비판** :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세일기업 아파치가 영국 정부가 부과하는 횡재세를 이유로 북해에서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영국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며 풍력발전기를 없애고 북해를 개방하라고 압박

영국은 작년 10월 북해의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대한 횡재세를 35%에서 38%로 인상하고 부과 기간을 '30년 3월까지로 연장. 영국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

-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재선출 : 119대 의회의 신임 하원의장 선출에서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 트럼프는 존슨 의장의 선출을 축하하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고 언급
- 멕시코, 미국에서 추방되는 3국 이민자 수용 가능성 : 세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민자 추방 사태가 발생한다면 멕시코에 도착하는 외국 국적 이민자를 해당 출신 국가로 송환할 수 있도록 미국에 관련 방안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1, E-mail jsch@kcif.or.kr